

“당 추락 부른 문 대표 징계 요청하겠다” - 황주홍

“야권 대통합 위해 문 대표 단안 내리길” - 박지원

도당 핵심 간부 연수서 밝혀

황주홍 도당 위원장은 지난 4일 전남지역 핵심 당원들 앞에서 “문재인 대표야말로 단일 야당의 유일한 걸림돌”이라며 “문재인 대표의 징계 요청서를 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영암 월출산온천호텔에서 열린 ‘전남도당 핵심간부 연수’에서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을 거부하고 현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이른바 ‘마이웨이’ 선언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월계관을 사실상 새누리당에 진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여권과 1대 1의 구도를 만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전위의 역할을 하겠으며, 유일한 걸림돌이 돼 있는 문 대표의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징계 요청 사유로 “문 대표가 선거마다 패배해놓고도 성실하고 도덕적 책임이 느껴지는 입장을 표명할 적이 없다”며 “이 엄중한 해당 행위에 대해 준엄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의 지역구(사상)를 버려 당에 타격을 입히는 해당행위를 했다. 멀쩡한 지역구를 두고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 전략적 요청지를 포기한 데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 거부와 관련, 문 대표가 징계요청과 함께 도당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공당이 아닌 문 대표의 사당이라고 착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인 당무감사가 아닌 엉터리 혁신안에



황주홍 도당 위원장이 지난 4일 영암 월출산온천호텔에서 열린 도당 핵심간부 연수교육에 앞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른 평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지역위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이지 도당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직을 그만 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연수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당 위기상황과 관련해 특강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분열상황에 대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 직전”이라고 진단하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간별기로 안 전 대표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나 자신도 내일, 또는 내년 1~2월에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통합만이 가장 큰 혁신이다. 꿈수로 시간별기하지 말고 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결국 국민의 마음을 쫓아서 이기는 정치를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전남 국회의원들, 예산 5조5천여억원 국회 통과 ‘앞장’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사업비 확보... 남해안시대 활짝

광양항 24열 크레인 설치·광주~완도고속도로 등 SOC 반영

우리 당 전남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내년 전남 지역현안사업비와 민생예산이 증액됐다.

3일 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과 전남도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전남의 2016년 국고예산 지원 규모는 5조5천884억 원으로 2015년 확보액(5조3천247억)보다 2천637억(5%)이 늘었다.

주요 반영사업은 중단됐던 남해안철도(목포~영암~보성) 사업비 500억,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사업비 108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1천600억원 등이다.

특히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3대 대형 SOC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전남지역 건설공사

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철도 건설 재개로 2020년 목포~부산이 철도로 연결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교류 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본격적인 남해안시대를 열게 될 전망이다. 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3기 설치 지원으로 갈수록 대형화되는 선사 수요에 맞춰 광양항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로당지원 등 어르신 효도예산 617억원 증액 △아이돌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다문화 지원 등 사회통합예산 318억원 증액 △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인상(2년간 연 60만원) 및 학교영양사 면허수당 월 63,500원 지급 등도 관철됐다.

도당, 영암 금정면 감수확 일손돕기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 11월 28일 대봉감 전국 최대 산지인 영암군 금정면에서 대봉감 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도당과 영암지역위원회 당직자 등 20여명은 이날 하룻동안 일손 부족과 우천으로 인해 적기 수확이 늦어진 금정면 아천리 대봉감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영암군은 890ha에서 연간 1만2천톤의 대봉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금정면은 약 680ha 77%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대봉감 주산지이다.

황 위원장은 일손돕기 현장에서 임용기 금정면장으로부터 감 재배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대봉감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과 가공품 지원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주류 의원 14명, 구당(求黨) 모임 결성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승리 불가… 文·安 살신성인해야”

전남·북 권리당원, 문 대표 당원소환투표 발의 추진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야권대통합을 위한 구당모임'(구당모임)을 결성하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김영환·신학용·노웅래·문병호·최원식·유성엽·황주홍·김영록·박혜자·장병완·김동철·이윤석·강창일·정성호 의원 등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와 비주류 의원 14명은 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구당모임'을 결성키로 했다.

간사는 노웅래 의원이 맡고 매일 오전 8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당 조직본부장인 이윤석 의원, 수석대변인 김영록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여를 결정했다.

'구당모임'은 이날 모임에서 현 지도부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문재인 대표와 안

철수 전 공동대표의 살신성인, 야권 대통합과 혁신실천 전당대회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그동안 비주류 의원들을 대변해왔던 민집모의 경우 발전적 해체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호남권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문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투표도 추진키로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남과 전북의 권리당원들이 문 대표의 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8일 중 준비가 되는대로 윤리심판원에 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당 문제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지금은 탈당을 말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야권의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은 “문 대표는 사퇴하고, 안 의원은 가급적 선부른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선거 패배 지도부가 책임져야”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위 득표를 한 주승용 최고위원(여수울)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며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먼저 책임지고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을 단합시키기 위한 방안과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 대표에게는 당을 살리고 회합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표가 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 선관위, 2015 선거아카데미 실시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19일 남악 전남여성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제20대 총선 출마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5 선거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에는 성경섭 MBC 논설위원이 나와 ‘방송 토론의 이해’란 주제로 선거방송 토론의 준비 자세와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여야 대표는 균형의식제를 즉각 수용하라”

호남국회의원, 선거구 협상·호남의석 사수 문 대표 약속 이행 촉구



유성엽, 황주홍, 김승남, 강동원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과 관련, 문재인 대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리 당 소속 광주·전남과 전북 국회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확정과 관련, 문재인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호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지역구 260석을 위한 균형의식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균형의식제를 합의하지 않고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으로 가게 되면 호남 의석수는 5석이 줄어 호남 정치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광주에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한 광주 동구 의석까지도 지키겠다는 약속, 농어촌 선거구와 호남 의석을 지키겠다는 약속, 또 호남의 의석이 단 1석도 훼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받는다. 이 방식을 19대 총선에 적용하면 154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150석을, 128석의 민주당은 124석을 얻게 된다. 양당 모두 4석씩 줄어드는 반면 자유선진당은 2석이 늘어 6석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11석에서 6석이 늘어 17석이 된다.

석패율제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균형의식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군소 정당 의석수가 많아져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고, 영남에서 우리 당이 교두보를 확보해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알고갑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인 균형의식제와 석패율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균형의식제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은 꼭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를 방지할 수 있어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만약 A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먼저 15석(10%×300석의 절반)을 보장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15석 이상이면 비례대표를 한명도 받을 수 없지만, 그 이하이면 15석에 못

호남국회의원 공동성명서

문재인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면서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우리 광주·전남·전북 의원 전원은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여당은 자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지역구 260석을 위한 균형의식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대로 실패하게 되면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246석이 되면 호남에선 5석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현행 호남전체 의석 30석에서 25석이 되어 호남 정치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1. 11월 18일 광주에서 문 대표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한 광주 동구 의석까지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2. 문 대표는 농어촌 선거구와 호남 의석을 지키겠다고 한 수 차례 약속을 이행하라.
3. 우리는 문재인 대표에게 호남의 광주·전남·전북 의석이 단 1석도 훼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호남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던 문 대표 발언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전원 일동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전 구간 착공

총연장 82.5km, 2020년 완공 예정... 11월12일 해남서 첫삽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전 구간 착공식에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가운데), 이낙연 전남지사(우측 다섯번째), 박철환 해남군수(우측 네번째) 등이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간 철도건설 공사가 공사 중단 8년 만에 전 구간에서 재착공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1월12일 해남공설운동장에서 목포와 보성을 연결하는 남해안철도 7개 공구 착공식을 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 구간은 2003년 착공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7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2억원의 관리비만 배정해오다 올해 15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사업이 재개됐다.

총연장 82.5km인 목포~보성 철도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3886억원이 투입된다. 목포 임성리에서 영암~해남~강진~장흥~장흥장동을 거쳐 보성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끝나면 목포~보성은 1시간7분이면 도착한다. 또 목포~부산은 3시간대면 갈 수 있다.

지지부진했던 남해안철도 목포~보성간 공사는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황주홍 의원(장흥·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구간 노선도

영암강진)과 우윤근 당시 원내대표(광양구례)의 활약으로 일부 공사비가 반영되면서 공사재개의 기회가 마련됐다.

당시 52억원의 재착공 예산이 극적으로 반영돼 일부 공구에서 공사를 재개한데 이어 지난달 전 구간 착공으로 이어졌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완공되면 남해안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집모 성명,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결단하라”

우리 당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결단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집모는 이날 ‘시간끌기가 문재인 대표의 수습책임가’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집모는 문 대표가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 체제를 제안했던 데 대해 “충분한 당내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적 단점을 안고 있는 연대를 제안해 당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고 평했다.

이어 “당이 위기에 처하게 된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당원과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도 혁신과 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문 대표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만 끌면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위기 수습 방안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집모는 “내년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통합과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당의 앞날도 국민의 앞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당 여성위원회, 12일 총선승리 전진대회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윤명희·김유화·김혜리 공동위원장)는 12일 오후 영암 군민회관에서 2016년 총선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총선승리! 정권교체! 여성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전진대회에는 황주홍 도당 위원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여성 지방의원,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여성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1부 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2부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며, 서영교 전국 여성위원장과 황주홍 도당 위원장이 총선승리를 위한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전복관리기, 다목적인양기, 선상집하장

바다 만능로봇의 산실 뉴텍

-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강소기업, 스타기업 선정
- 국무총리표창장 및 전라남도지사표창장 외 다수의 표창



전기식다목적인양기



유압식다목적인양기



양식장 관리기



수산물 인양기 배수갑문



쓰레기수거용크레인

뉴텍은 국내 보급된 양식장관리기의 70% 이상, 다목적 인양기는 전남에서 최초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의 현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목적인양기 및 양식장관리기는 전남북은 물론 경남과 충남의 서해안 어촌계를 비롯하여 백령도까지 설치돼 어민들의 손과발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및 연구소 : 해남옥천농공단지(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농공단지길 65) / 전화번호 : 061)535-4366

전남농업경영인 ‘한중FTA반대·쌀값보장’ 요구 시위

물가상승률에 맞춘 농산물 판매가 보장 등 10개 항 요구

3일 전남도청 앞 광장 1천여명

이윤석 김영록 국회의원 참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연합회(회장 김승식)는 지난 3일 오후 무안군 남악읍 전남도청 앞에서 '한중FTA 반대 및 쌀값폭락 대책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윤석(무안·신안),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과 시군연합회 소속 농업경영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해 'FTA반대'와 '쌀값보장'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재고 쌀 처분하고 쌀값 보장하라'는 성명을 통해 "올 8월까지 쌀 재고량이 137만4천톤으로 보관료만 연간 5천억원이 넘는다"며 "이런 부분을 줄여 농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에 맞춘 농산물 판매가 보장, 보관 쌀 대복지원 확대, 변동직불금 시도별 차등지급 등 10개항의 요구사항 관철을 정부와 전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한 이윤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쌀 대복지원 재개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밥쌀용 쌀 수입 철회 등을 통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남 의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소속 농업경영인과 이윤석, 김영록 의원 등이 지난 3일 오후 열린 'FTA반대 및 쌀값보장 촉구' 집회에 참석,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명현관 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서 쌀값 보장 촉구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은 지난 3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쌀값폭락 대책 촉구 건의문'을 상정해 의결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명 의장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감소,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복지원 40만톤 지원 재개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의 쌀값 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쌀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할 때 수확기 쌀값 기준을 RPC 쌀 판매가의 평균가격에서 농민들이 실제 수령하는 조곡수매 평균가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고잡시다

일어두면 유익한 정치관계법을 전남도선관위에 의뢰해 문답풀이로 제공합니다.

[問 1] 명함규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 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내용이 개제된 의정보고서를 통상의 명함 크기로 작성하여 선거일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명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에는 선전물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위반된다.

[問 2] 의정활동보고회에서 동료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할 수 있는 지?

- 동료 국회의원 등 타인이 축사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된다.

[問 3] 의정보고서를 사군청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거리 등에서 배포, 가정집을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배부가 가능한 지?

-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나 마을회관 비치는 가능하나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 배부는 제254조 또는 제25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창립대회 열려... 폭력진압 경찰청장 규탄

우리 당 전국조직으로 신설된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창립대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국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농어민단체 대표 및 전국 농어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창립 결의문을 통해 "전국 농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고통스런 농촌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정책에 농민의 뜻을 반영해나기 위해 오늘 농어민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며 "현 정부의

반농업적 정책을 기필코 저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뭉쳐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한 경찰청장의 즉각 해임과 사과 ▲쌀값 회복을 위한 20만톤 추가격리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농어민위원회는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자 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농업과 농촌의 활로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 유권자 희망메시지 전달식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회의실

전남도선관위는 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서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 유권자 희망메시지 제1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희망 메시지는 600여건으로 유권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견수렴을 위해 도선관위가 도내 다중집합장소 23곳과 도선관위 키카오스토리를 통해 수집했다.

유권자들은 △목포 대양산단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마을별 간이주차장 설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한국어교육 실시 △쌀값 안정 △다자녀 혜택 확대



전남도선관위 최성필 홍보과장이 지난 3일 도당 김현호 수석사무처장에게 20대 총선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등의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희망 메시지로 전달했다.

무안군 신성장 동력 '길'에서 찾다

지역현안 점검

7. 무안 해안일주도로 조성사업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길 될 것”

무안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안관광도로가 가시화 되고 있다. 무안군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무안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8개지구) 중 지역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무안 해안관광 일주도로 노을길 조성사업을 연내에 착공한다.

군은 연내에 착공하는 노을길을 비롯해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 영산강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안관광도로의 핵심인 ‘노을길’ 조성사업은 무안군이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핵심기반시설



무안생태갯벌체험센터에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갯벌 체험을 하고 있다.



하반기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 조성사업 이번 달 착공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백련길건강생활도로 내년 상반기 착공

사업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을 발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관련

법규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완료하고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사업구역(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11월 12일 고시(전라남도지사)하였다.

‘노을길’은 망운면 조금나루 부터 현경면 봉오제 해안 일대에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약 10km 구간에 조성되는 해안관광 도로. 총사업비 134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 길은 구간에 따라 2차로, 보행도로, 자전거도로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며 2곳에 해안공원을 만들고, 3개소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도 설치되며, 서해안 특유의 바닷가 환경을 그대로 살려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을길 주변은 무안의 또 다른 자원인 황토성분을 대량 함유한 논밭이나 낮은 구릉지로 형성돼 있어 생태체험 관광에 제격이다.

노을길의 대부분은 모래사장과 연결되어 있고, 약 9만㎡ 규모의 자연 해송 숲과 해안사구 등 생태환경이 빼어나 해안에 위치해 있어 서남해안 관광의 메카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무안의 동서를 연결하는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

무안군의 신성장 동력사업은 ‘길’에서 찾을 수 있다. 무안의 동서를 연결하는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김철주 무안군수



무안 해안일주도로 구간 중 ‘노을길’의 자전거 도로 모습.(무안군 제공)

길’ 조성사업은 몽탄면 이산리 영산강변 도로에서 청계면 청수리 청계농공단지 인근까지 11km구간에 걸쳐 2018년까지 국비 179억여 원이 투자된다.

이 도로는 동서축 연결도로가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안군이 10여 년 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프로젝트였으나 올해부터 사업이 체계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만남의 길은 신설구간 1km를 제외하고 산림이나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기존 도로와 농로 및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된다. 승달산 자락의 자연숲을 느끼며 힐링 체험이 가능하다.

연말에 공사에 착공, 2018년 준공할 예정이며, 완료시 교통 및 물류여건 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주변 지역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영산강과 회산 백련지를 연결하는 ‘영산강~백련길’

영산강-백련길 건강생활도로는 무안의 대표 관광지인 회산백련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 네트워크 기반

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로읍 소재지부터 회산연꽃방죽까지 3.3km의 생태길, 3.8km의 자전거 도로가 2018년까지 국비 94억여 원을 들여 조성된다.

호남선 철도 폐선부지를 매입하여 건강보행로 등 생태길을 조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영산강 강변도로와 회산백련지를 잇는 자전거도로도 개설하여 영산강 자전거 순례 길의 필수 코스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황토, 갯벌, 리아스식 해안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안일주도로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앞으로 무안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 2016년 목포시 국비 예산 3102억원 확보



박지원 의원(목포)은 "예산심사과정에서 2016년도 목포시 관련예산 786억5000만원을 증액해 총 310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목포 관련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2315억 5000만원이었으나 ▲목포~송정 KTX 1600억원(500억원 증액) ▲목포~보성 철도 500억원(250억원 증액)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140억원(20억원 증액) ▲세라믹생태계 조성사업 30

억(11억5000만원 증액) ▲다도해 국제요트대회지원 5억원(전액 증액) 등 총 51건 3102억원이 확보됐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남지사, 우기종 전남 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등과 함께 국회예결위원,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목포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득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이 지난 4일 영암 월출산온천호텔에서 열린 도당 핵심간부 연수에 앞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 제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4선의 김성곤 의원(여수갑)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 불출마를 선언했다.

호남 중진의 텃밭 불출마 선언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호남 최다선 의원으로서 저부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단 현 지역구 불출마를 결심했다"

고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당에서 어려운 지역에 나가라고 한다면 그러한 여지까지 닫는 건 아니다"라며 힘지 불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 당에서 수도권 열세지역 등에 차출한다면 그것까지 피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현재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성곤 의원이 지난달 24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광림동 행복페스티벌에 참석,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주승용 의원, 여수시 국비 예산 2,435억원 확보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 2일 통과된 2016년 예산에서 여수시 국비 예산 2,4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항목별 주요 사업비 반영액은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타당성조사비 1억 ▲여수산단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 ▲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울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사업비 90억 ▲

여수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30억원 등이다.

또 국비 사업으로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715억 ▲여수신복항 건설 441억 ▲화양-소라국지도 22호선 270억 ▲국도 17호선 돌산-우두 147억 ▲울촌 2산단 진입로 50억 ▲묘도 산단 진입도로 31억 ▲학동 하수처리시설 설치 40억원 등을 확보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왼쪽 두번째)은 지난달 30일 민중총력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추미애, 정청래, 신정훈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신정훈 의원, 나주시 국비 예산 2,356억원 확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4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나주 고막원) 사업비 1,600억원, 나주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비 292억원 등 2,35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나주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292억(17억 증액) ▲체감형 게임센터 구축 및 운영 150억(10억 증액) ▲화순 능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70

억(15억 증액) ▲나주 빛가람파출소 신축 12억 ▲영산포 풍물시장 주차장 건설 10억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 220억(5억 증액) ▲화순 이서치안센터 신축비 3억원 등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송정~나주고막원 구간(26.4km)은 1,6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내년 실시 설계후 2017년 4월 착공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정책인 육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 국제의원연맹 난민국적권 보장 회의 참석



한국 의회 대표단 일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우윤근 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난민 국적권 보장에 관한 회의에서 '무국적 상태방지: 모든 출생 아동에게 국적 보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국적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노력

이 필요하며 앞으로 난민 인권문제도 같이 논의되는 회의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인권침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북한 주민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한국 대표로 참석해 무국적 상태방지 및 해결, 각 국 의회간 파트너십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윤근 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개호 의원, 함평우체국과 함께 독거노인 방한용품 전달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3일 함평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이불, 조끼, 목도리, 장갑, 양말 등 방한용품 세트를 어려운 독거노인 14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이 의원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쁘다”면서 “오늘 지원해드

린 방한용품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훈훈한 정을 느끼는 겨울이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우체국은 홀몸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연말 행복나눔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함평우체국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방한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승남 의원, 제3자가 폴리스 라인 설정...집시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4일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설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폴리스라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나 교통소통 등의 상황을 판단해 설정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관할 경찰서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

하고 경찰서장은 이에 따르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임의대로 경찰차벽을 세우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하여 과격집회·시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찰과 시위대,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질서유지선이 설정되면 불법과격 집회·시위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18일 보성 웅치면 농민회원과 함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트린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황주홍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이 지난달 25일 지방자치TV와 대한기자협회가 선정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대한기자협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기관 및 단체의 추천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황 의원을 포함, 우리 당에서 신정

훈, 우윤근 의원 등 14명과 새누리당 11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다. 황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지역신문발전법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부각시켰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확충 4대 법안' 등 올해만 8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도당 위원장이 지난 4일 영암 월출산온천호텔에서 열린 도당 핵심간부 연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 “섬 지역 최초로 진도에 도시가스 공급”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3일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섬지역 최초로 진도에 도시가스(LPG)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섬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부연구기관의 LPG 공급 경제성 자료를 입수해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하고 정부를 설득해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도·완도군에 우선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전남과 강원, 경북 각 1개군 등 총 3개 군에서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 최초로 진도군이 선정된 것은 '3천가구 이하 규모에 한정된 예산,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영록 의원(우측에서 6번째)이 지난 3일 도청 앞에서 열린 한농연 주최 FTA 반대 집회에 참석, 이윤석 의원과 함께 쌀값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석 의원, 한기충 선정 '자랑스러운 지도자상' 수상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이 지난 3일 제26회 한국교회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기충은 연말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지도자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교회 지도자상 2인, 자랑스러운 지도자상 12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교회 지도자상은 정치부문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목회부문에 고 김준곤 목사, 자랑스러운 지도자상 중 정치인상에는 이윤석·박윤옥 의원이 선정됐다. 한기충은 이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한 인물로 그 배경을 밝혔다.



이윤석 의원이 지난 3일 무안군 장애인근찬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당권 장악이나 정권 재창출이나”, 집권당 힘겨루기 본격화

DJ 없는 동교동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도 시작

전남의 아당사

10. 현실화된 집권 후반기 레임덕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운명체로 여인 권노갑 전 최고위원과 동교동계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자신들의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숙명을 피할 수 없었다.

C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려는 동교동계의 무리수가 최단명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인사파문과 같은 파행을 초래한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장파들로부터 지탄받은 동교동계의 권력과 인사의 독점현상은 역으로 그만큼 동교동계가 느꼈던 위기감이 심각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장파의 대대적인 공세에 직면했던 동교동계의 정국 돌파전략은 무엇이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풍’을 요구하고 나섰던 소장파들의 동교동계 정국 전망에 대한 비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한 소장파 의원은 당시 동교동계의 정국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교동계의 중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 그들의 지상과제였습니다. 10%대까지 떨어졌던 김 전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하는 것이 동교동계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 당 보다는 김 전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파들의 목표는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생불능 상태인 김 전 대통령의 인기회복에 굳이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이 당과 결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통령을 정치적 사고의 중심에 놓는 동교동계의 정국인식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던 당내 소장파들의 요구와 격렬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당사자인 동교동계 인사들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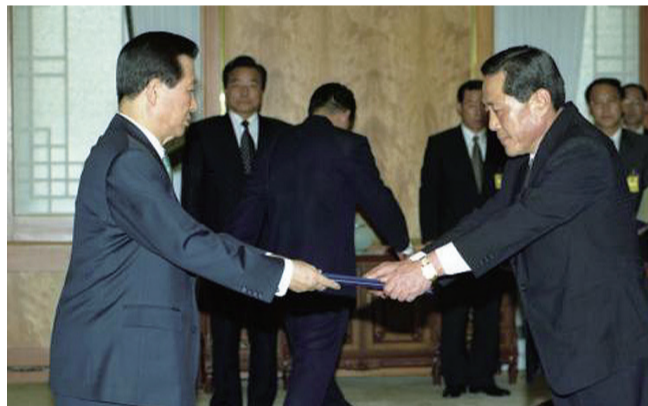
“정권은 못 잡아도 당권은 놓지 말아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교동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DJ없는 동교동계’의 앞날에 대한 불안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의 정치집단으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민정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민정계는 여전히 정치세력으로 생존해 있습니다. 반면 상도동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뿔뿔이



2014년 5월 15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들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있다. 그는 '충성맹세 문건' 파문으로 43시간 만에 옷을 벗었다.

흩어져 정치세력으로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80년대를 풍미했던 두 집단이 오늘날 이렇게 처지가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느냐 여부입니다. 민정계는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거치며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회창 전 총재의 한나라당에서도 당권을 사실상 장악한 주류세력입니다.

반면 상도동은 김영삼 정권 초기 현철씨와의 갈등으로 김덕룡 전 의원(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당시 2인자 그룹으로 성장하려던 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각개약진을 노렸던 최형우 전 의원(전 내무부 장관)마저 병으로 쓰러지고 서석재 전 의원(전 총무처 장관·2009년 작고)이 이인제 후보의 국민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YS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후계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상도동은 결국 당권도 정권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권을 못 잡더라도 당권만은 놓지 않아야 정치세력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민

정계와 상도동계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교동계도 이 점을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당권’과 ‘대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지 않아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동교동계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 당시 정치권에서는 동교동계의 1차 목표를 ‘당권장악’으로 보고 있었다. 소장파 의원들의 성명파동에 대해 동교동계가 격노한 것은 이들이 당권장악을 노리고 ‘거사(學事)’를 일으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석에서 만난 동교동계의 H 전 의원은 과거 파동을 정동영이 당 대표를 맡으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한광옥 당 대표설의 진원지는?

실제 과거 정풍파동이 있기 직전, 권노갑 전 최고위원과 한광옥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민주당을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동교동계 내부에서 꿈틀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정가에 파다했던 ‘한광옥 대표설’의 진원지가 바로 ‘동교동’이었다는 얘기가.

동교동계의 시선이 당권장악 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사실은 동교동계가 스스로 대권주자를 내놓지 못했던 현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최고위원 경선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2002년 1월과 7월 이후로 각각 분리해 열자는 권 전 최고위원 등 동교동계의 주장에는 당권장악을 1차 목표로 삼았던 동교동계의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다.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불가피하게 당권을 장악한 이후 대선후보 선출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정권 재창출에 관계없이 김 전 대통령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는 동교동계의 숨은 계산으로 분석된다.

송승환 편집위원



황주홍 도당 위원장과 도당 및 영암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지난 11월 28일 영암 금정면에서 감 수확 일손돕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주홍 도당 위원장(장흥·영암·강진)이 지난 11월 28일 감 수확 일손돕기에 앞서 임용기 영암군 금정면장으로부터 대봉감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여수를 지역여성위원회 소속 여성당원들이 지난 4일 여수노인복지회관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주승용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완도·진도지역여성위원회(위원장 김중숙)는 지난 8일 오후 해남노인복지회관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와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농어민위원회 창립대회에서 참석 농어민들이 농민 백남기씨를 중태에 빠트린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 혁신토론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주최 광주혁신토론회가 지난 11월 30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렸다.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소속 당원들이 지난달 20일 나주 엘리시안웨딩홀에서 핵심당원 연수 행사를 마치고 신정훈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악
시론

12월의 단상



김선욱
전남일보 정치부 차장

12월은 2016년 4·13총선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겨울이다. 벌써부터 여의도 정치권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당 주도권과 공천권을 쥐기 위해 계파간 권력투쟁이 한창이다. 여당이나 야당의 당내 갈등은 속을 들여다 보면 '밥그릇 싸움'이다. 새누리당의 친박(친 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친노무현)대 비주류(비노무현·호남)의 난타전은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다.

눈 뜨고 못볼 만큼 참담한 쪽은 새정치연합이다. 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도체제를 놓고 서로를 향해 폭주기관차 처럼 질주하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 전 공동대표와 비주류는 사실상 문 대표 퇴진을 압박하고, 친노 주류는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내분은 분당사태로 치닫고 있다.

정치시계를 지난 2월8일 전당대회 때로 돌려보자. 박지원(목포) 의원을 누리고 당선된 문 대표는 전대기간 내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달 뒤 치러진 4·29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당의 심장부인 광주(서구을)는 물론 야권 텃밭인 서울 관악(을), 그리고 다른 수도권 2곳에서 전패했다. 이후 당내에선 계파 갈등만 존재할 뿐 타협이나 협상은 실종됐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10·28 재보선에선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도 불구하고 22대 2로 완패했다.

문 대표는 전대에서 세 번의 죽을 고비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하나는 전당대회고, 또 하나는 당 혁신, 마지막은 총선 승리였다. 문 대표는 지금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 듯 보인다. 당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국 '이기는 정당'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문 대표가 져야 한다.

한 때 문 대표의 동지였던 안 전 공동대표는 지금은 적이 돼 돌아서버렸다. 문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를 거절하고,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며 12월의 첫 날 광주로 향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권력을 양분하자는 문 대표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 문·안·박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이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총선에서 패할 경우 문 대표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까. 당 대표를 다시 뽑자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대표가 돼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는 "광주에서 '강철수(강한 안철수)'가 되라는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었다며 호남 민심에 다가가려 애

썼다. 안 전 공동대표는 문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에 재차 혁신전대를 요구했다. 문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사람은 '결별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강대강' 대결로 내용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안 전 공동대표와 비주류측 의원들의 탈당 등 극단적 선택으로 당이 둘로 쪼개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외곽에선 야권성향의 신당들이 창당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각각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추진위와 통합신당 추진위를 띄웠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가칭 신민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물은 천 굽이를 돌아 바다에 이른다"는 말처럼 신당도 우여곡절 속에 12월이면 단일 신당창당이라는 희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박 의원과 박 전 지사가 먼저 합치고, 이후 천 의원이 결합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를 영입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은 야당집안 싸움과 분열하는 야권을 더 지켜볼 이유도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100석도 건지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의 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새정치연합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두 사람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통합과 혁신의 배를 띄워야 한다. '이기는 정당'을 준비하지 못하면 또 다시 내년 4월 표로 심판 받는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12월의 '야경'이다.

논평

박 대통령, 누구를 위한 작심발언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국가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면서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루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 박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대놓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독설은 야당과 입법부를 설득과 타협이 아닌 지시의 대상, 또는 거수기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모양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가 대통령이 요청하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노동관련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이 가중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버지 세대들을 해고하기 쉽다는 맹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기 바란다. 소정부 재의 일방독주로는 국민도, 야당도 더 이상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전남도당
성명

과잉 살인진압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보성의 60대 농민을 중태에 빠트리는 과잉진압으로 경찰권을 남용한 경찰 책임자의 공식사과와 처벌을 요구한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보성농민회 소속 농민 백모씨(68)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해산에 나선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얼굴과 가슴을 직격당해 그대로 쓰러졌다. 경찰은 쓰러져 있는 백씨에게 다시 물대포를 15초간 조준발사했고, 뇌출혈 증상으로 중태에 빠진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4시간여 동안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하다. 이번 사고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 과잉 진압이자 명백한 국가폭력 행위이다.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도록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밥쌀용 쌀 수입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생존권적 투쟁에 나선 우리 지역 농민을 불법 과잉진압으로 쓰러트린 박근혜 정부와 경찰 책임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쓰러진 백씨를 향해 조준살수를 계속 한 과잉 살인진압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하라.
2. 새누리당은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스스로 위반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 행위를 비호하지 말고,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라.
3. 박근혜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인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민생현안을 보살피라.

2015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전남도당 11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도 이월금 및 기관지발행수입 등 8억9,754만원
지출, 조직활동비 6,827만4,600원 등 1억341만1,688원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의 11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834만326원과 당비 수입 5,878만9,770원, 상급당부 보조금 2,601만1,431원을 포함해 총 8억9,754만1,5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당은 이 가운데 사무소 설치 운영비

로 919만9,488원, 조직활동비 6,827만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인건비 항목으로 2,593만7,600원 등 1억341만1,68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말 현재 잔액은 7억9,412만9,839원을 보고드립니다.

11월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도당 사무처 장미랑 총무주임(T.061-287-12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도당 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5.11.01 ~ 11.30)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 년 도 이 월	808,340,326	808,340,326	0		
	당 비	18,700,000	18,700,000	0		
	기탁금(중앙당예한함)	0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0		
	보조금(중앙당예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26,011,431	26,011,431	
			하급당부	0	0	
		계	26,011,431	26,011,431		
보조금외		상급당부	44,489,770	44,489,770		
	하급당부	0	0			
계	44,489,770	44,489,770				
소 계	70,501,201	44,489,770	26,011,431			
그 밖 의 수 입	0	0	0			
합 계	897,541,527	871,530,096	26,011,431			
지 출	선거비용	0	0	0		
	기본경비	인 건 비	25,937,600	8,466,040	17,471,560	
		사무소 설치 운영비	9,199,488	9,199,488	0	
		정 치 활 동 비	정 책 개 발 비	0	0	0
			조 직 활 동 비	68,274,600	68,274,600	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0	0	0
	그 밖 의 경 비	0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소 계	0	0				
합 계	103,411,688	85,940,128	17,471,560			
잔 액	794,129,839	785,589,968	8,539,871			

● 당비 지출 내역

과 목	연월일	내 역	성 명	직 업	금 액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02	임명장케이스 및 내지 제작비용	코리아프린테크	제조	2,759,9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03	문자발송관련 선충전비용	문자나라	문자	5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06	사무실 비품구입비(당보발송주소용라벨)	오피스디포	문구	74,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06	사무실 임대료(11월분)	주현주건설	건설	2,75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2,8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11	사무실 비품구입비(당보발송관련)	오피스디포	문구	25,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12	사무실 비품구입비(당보발송관련)	오피스디포	문구	47,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16	사무처 다과 및 비품구입비	주식회사와이마트남악	도매	94,35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0	정수기 렌탈비용 자동이체	웅진코웨이	대여	47,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5	사무실 전화요금(문자발송포함)(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1,984,13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5	사무실 CCTV이용료 자동이체	씨피에스	서비스	49,5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5	회계보고용 도장 제작비용	진금사	도장	24,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5	사무처 다과 및 비품구입비	주식회사와이마트남악	도매	31,3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7	등기발송료(중앙선관위교육관련 회계자료)	남약우체국	우편	4,03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28	사무처 당직자 다과비용	GS영암터미널점	도매	17,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30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11월분)	남악도청프라자	부동산	874,478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30	복사기, 프린터 임대비	제이앤씨정보통신	임대	264,000
사무소설치운영비	2015-11-30	신문지료요금	신문	신문	91,000
인건비	2015-11-02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교육연수국장, 총무주임)	복산향칠오리	음식	60,000
인건비	2015-11-03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총무주임)	공향맛집	음식	48,000
인건비	2015-11-03	사무처 당직자 특별업무수당	000	기획국장	500,000
인건비	2015-11-0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교육연수국장, 총무주임)	서해안식당	음식	56,000
인건비	2015-11-04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지 전달관련 출장비	000	민원국장	60,000
인건비	2015-11-04	현수막, 피켓제작비용	대하인쇄	제조	2,013,000
인건비	2015-11-0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미숙씨해장국	음식	14,000
인건비	2015-11-05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진향전통중화요리	음식	20,000
인건비	2015-11-06	사무처 당직자 식대(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여성국장, 총무주임)	명태촌	음식	42,000
인건비	2015-11-09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교육연수국장, 총무주임)	원조의정부부대찌개	음식	46,000
인건비	2015-11-09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홍도전복집	음식	48,000
인건비	2015-11-10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유생촌목포점	음식	38,000
인건비	2015-11-10	유급사무담당자 4대보험료(자동이체)	국민연금		4,793,340
인건비	2015-11-11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여성국장, 교육연수국장, 총무주임)	복산향칠오리	음식	75,000
인건비	2015-11-12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백원사랑강남동대방남약점	음식	40,000
인건비	2015-11-12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유생촌목포점	음식	57,000
인건비	2015-11-13	사무처 당직자 당보작성관련 다과비	파리바게트남약도청		38,500
인건비	2015-11-13	사무처 당직자 식대(사무처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나주곰탕명대감	음식	32,000
인건비	2015-11-17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장터	음식	32,00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11월분 급여	000	수석사무처장	3,500,00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11월분 급여	000	대변인	2,974,86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11월분 급여	000	조직국장	2,980,00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11월분 급여	000	민원국장	2,978,89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11월분 급여	000	기획국장	2,937,81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11월분 급여	000	총무주임	2,100,000
인건비	2015-11-20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스시향	음식	32,000
인건비	2015-11-23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여성국장, 교육연수국장, 총무주임)	진향전통중화요리	음식	70,000
인건비	2015-11-2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수가정	음식	48,000
인건비	2015-11-2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서해안식당	음식	60,000
인건비	2015-11-24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사창집불구이	음식	55,000
인건비	2015-11-26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조직국장, 전략국장, 총무주임)	호호대반점	음식	38,000
인건비	2015-11-27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총무주임)	유생촌목포점	음식	57,000
인건비	2015-11-28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기획국장)	김밥천국	음식	45,000
인건비	2015-11-30	17개시도당 지방자치위원장 및 지방자치실무담당자 간담회출장비	000	지방자치 1부국장	48,200
조직활동비	2015-11-02	곡성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식대	중앙식당	음식	700,000
조직활동비	2015-11-02	곡성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식대	중앙식당	음식	600,000
조직활동비	2015-11-02	곡성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남신관광	운수업	1,700,000
조직활동비	2015-11-02	무공천으로 인한 등록비 반환	이00		1,000,000
조직활동비	2015-11-02	무공천으로 인한 등록비 반환	송00		1,000,000
조직활동비	2015-11-02	무공천으로 인한 등록비 반환	조00		1,000,000
조직활동비	2015-11-04	국회의원 지원금(황주홍 외 5인)		국회의원	24,460,000
조직활동비	2015-11-04	완도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식대	청솔가든	음식	570,000
조직활동비	2015-11-04	완도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완도청해관광여행사	운수업	1,430,000
조직활동비	2015-11-04	장흥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세계일주	운수	2,200,000
조직활동비	2015-11-04	강진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유한회사삼진관광	운수업	2,420,000
조직활동비	2015-11-04	영암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유한회사삼진관광	운수업	2,420,000
조직활동비	2015-11-05	국정교과서 거리현수막 제작비용(목포 외 21개지역)	제조		2,039,000
조직활동비	2015-11-05	중앙당 당직자 결혼 축하 화환 구입비	탐진화원	꽃	100,000
조직활동비	2015-11-06	해남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 식대	라온관광	운수	2,000,000
조직활동비	2015-11-06	진도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 식대	진도관광	운수	2,000,000
조직활동비	2015-11-11	당보발송관련 상자 구입비용	삼호우체국	우체국	25,200
조직활동비	2015-11-11	당보발송관련 우체국 발송료	삼호우체국	우체국	145,800
조직활동비	2015-11-13	당보발송관련 우체국 발송료	강진우체국	우체국	2,019,600
조직활동비	2015-11-13	당보발송관련 봉투제작비	삼보애드컴	제조	924,000
조직활동비	2015-11-13	담양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한빛고속관광	운수	1,600,000
조직활동비	2015-11-13	함평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예향고속관광	운수	800,000
조직활동비	2015-11-13	함평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금성관광	운수	800,000
조직활동비	2015-11-13	영광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한민족여행나라	운수	1,600,000
조직활동비	2015-11-13	장성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버스대절료	임해관광	운수	1,600,000
조직활동비	2015-11-13	담양군 대민자원봉사활동 관련 식대	담양온천	음식	500,000
조직활동비	2015-11-13	담양함평영광장성 당원 한마음대회 관련 행사비용	글로리아이벤트	서비스	3,100,000
조직활동비	2015-11-19	당보제작 원고료(전남의 야당사)	송00	도당편집위원	165,000
조직활동비	2015-11-19	당보제작 원고료(남약신문)	강00	전남매일	150,000
조직활동비	2015-11-19	11월 당보 발간비용(편집, 용지, 인쇄비, 배송)	푸른	제작	5,536,000
조직활동비	2015-11-28	전남도당 대민자원봉사관련 식대	고향식육식당	음식	362,000
조직활동비	2015-11-30	[여수출]국정교과서 반대 전국 동시서명운동 관련 비용	디자인샵	제조	990,000
조직활동비	2015-11-30	부산시장 당직자 부인상 근조화환 구입비	탐진화원	꽃	100,000
조직활동비	2015-11-30	수수로인하 거리현수막 제작비용(목포 외 22개지역)	제조		2,128,000
조직활동비	2015-11-30	전남도당 대민자원봉사관련 식대	김밥천국	음식	90,000
계					103,411,688

